

제1장 서론

소위 Hwang gate로 불리는 황우석 전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사건은 전세계의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학계 등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의학계 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선진국과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첨단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도입에 힘입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는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Medline 등재학술지가 몇 개 안 되던 시절에는 국내 우수 논문을 외국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목으로 이중게재를 권장하던 학회도 있었다.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설립되고, ‘KoreaMed’가 가동되면서 등재 학술지 선정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의학 학술지의 투고규정이 개정되었고 투고시에 이중게재를 하지 않겠다는 저작권 이양동의서의 제출이 당연시되었다. ‘PubMed’와 같은 방식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KoreaMed’를 통하여 국내문헌이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되어 이중게재가 자주 발견되면서 출판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이지만 흔하게 동반되는 연구윤리 문제도 함께 다루어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진실성의 요점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